

나주시, 농촌마을 어르신 정신건강 직접 챙긴다

공산면 10개 마을 ‘정신건강행복마을’ 지정·운영

노인 우울증·치매질환 조기 검사·상담 진행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노년기 우울증, 극단적 선택 위험에 노출된 농촌마을 주민들의 정신건강 돌봄에 나선다.

나주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산면 관내 10개 마을을 ‘정신건강행복마을’로 지정, 최근 마을별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신건강행복마을은 보건·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노인 우울증, 치매질환으

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마을 주민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소는 마을별 경로당을 거점으로 보건·상담 전문 인력을 투입해 ‘우울증·치매예방교육’, ‘정신건강 선별검사’, ‘이동상담’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정신건강 고

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와 맞춤형 치매 치료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여기에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을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지킴이로 양성하는 한편 마을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해 음독 등 극단적 선택 예방에도 힘을 기울인다.

김영식 나주시보건소장은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극단적 선택 예방교육 등을 통해 노년기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 치유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준공식

11억 투입...1층 식당과 2층 프로그램실·남녀 화장실·휴게실 등

진도군이 노후화 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식당을 최근 신축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기존의 진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은 지난 1989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진도군은 지난해 8월 착공 후 8개월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다.

군비 11억3,700만원을 투입해 1층 식당과 2층 프로그램실, 남녀 화장실, 휴게실 등 건축 연면적 316.88㎡ 규모로 건립했다.

최신식 시설의 식당 건립으로 장애인들

이 보다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준공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새롭게 만들어진 식당이 더 넓고 편리한 공간으로 새단장되어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진도군은 장애인들의 삶에 필요한 일자리와 의료,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함평군 월야면, 독거노인대상 세탁(이불) 봉사 펼쳐

92가구 대상 이동 무료세탁 봉사활동

함평군 월야면은 최근 달맞이문화센터 주차장에서 독거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이불 빨래가 어려운 92가구를 대상으로 이동 무료세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동 무료세탁은 월야면적십자회, 월야면생활지원사, 기아자동차 세탁봉사단 등 3개 단체의 협업으로 이뤄진 윈스톱 봉사 서비스다.

여기에 대한적십자광주전남지사 광주 봉사관의 세탁차량 1대, 119 살수차의 지

원과 더불어 진행됐다.

월야면생활지원사는 이불 방문 수거 및 배달, 기아자동차 세탁봉사단과 월야면적십자회 회원들은 세탁, 탈수, 건조 등 세탁 과정을 맡았다.

기호남 월야면적십자회장은 “겨우내 묵었던 때를 벗고 깨끗해진 이불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이 기뻐하실 생각을 하니 힘든 것도 잊을 수 있었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백인상 월야면장은 “여러 단체의 협연으로 힘이 되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외받는 면민이 없고 행복한 월야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장흥군, 아동가구 재래식 화장실 ZERO화 프로젝트 추진

총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내달부터 공사 실시할 예정

장흥군은 아동들의 안전한 최저주거권 보장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군청에서 협약을 맺고 ‘재래식 화장실 Zero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읍면마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래식 화장실 실태 조사를 마쳤으며, 화장실 개보수가 시급한 저소득 아동가구 12곳을 선정했

다. 박수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의 아동 주거 빈곤율이 10.8%로 타 시도에 비해 높고, 그만큼 열악한 화장실에서 고통을 참으며 생활하는 아동들이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며 “화장실 개보수를 시작으로 공부방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지역 복지까지 관심

을 넓히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내달부터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보편 사업비 3,000만 원을 초과한 사업비는 지역 내 기업, 단체, 개인 후원가의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마련될 계획이며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 1호, 나눔선사로 첫 기부자로 나섰다.’

장흥=김도영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